

“올바른 길에 서서”, 홍정환 형제 가족 이야기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의 홍정환 형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모범을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침례를 받고 학교를 졸업한 그는 바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던 홍 형제는 군 복무를 마친 후 BYU-하와이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유학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1999년 1월, 홍정환 형제는 영원한 반려자가 될 김영 자매를 만났다. 와드의 독신 회원 대표로 봉사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품게 된 두 사람은 4개월 간 교제를 계속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예정된 이별을 해야만 했다. 홍정환 형제가 유학길에 오른 것이다. 홍 형제는 힘든 유학 생활 속에서도 김영 자매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전화와 이메일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망망대해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그리움을 전해주었다. 1년 반이 지난 후 김영 자매도 BYU-하와이로의 유학을 선택했다. 사랑을 위해 서였다. 두 사람은 2001년 7월에 하와이 성전에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었다.

홍정환 형제의 유학 생활은 힘들고 고됐다. 스물여섯이라는 늦은 나이에 타국에서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홍 형제에게는 손수 학비를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 컸다. 학교 재정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도움을 청했다. 선배들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다.

졸업 후 홍 형제는 학교 내의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의 상사는



왼쪽부터: 김영 자매, 민서, 윤서, 홍정환 형제, 진서

성실하고 똑똑한 홍 형제를 유심히 보고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주었다. 또한 5년 후 퇴직하게 되는 자신의 후임으로 홍정환 형제를 지목했다. 그것은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고, 고마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홍 형제와 김 자매 부부에게는 그 어떤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을 확고한 결심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다.

미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에 다시 귀국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들 부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는 귀국이란 주님에게 답을 물을 문제가 아닐 정도로 당연한 것이었다.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이미 충분한 가르침과 지침을 배웠고, 그리하여 두 부부에게는 선택 의지를 사용하여 신앙을 행사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었다. 홍정환 형제와 김영 자매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했다. 두 사람의

옆에는 유학 생활 중 얻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늘 함께였다. 물론 홍정환 형제 가족은 귀국 후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홍 형제가 인생의 지침으로 생각하는 스티븐 코비 형제의 ‘주도적이 되라’는 말을 되새기며 어려움들을 하나 둘 헤쳐 나갔다. 주중에는 어학원에서 불철주야 일을 했고, 주말에는 스테이크 집행 서기로 열심히

봉사했다. 귀국 후 4년, 현재 홍 형제는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굳건한 시온을 세우고 있다. 그는 개인이 시온이 되고, 각 가정의 시온이 되어야 한다는 모범 답안 위에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낀 몇 가지를 덧붙인다. “선지자들께서 우리를 물가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마시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발전과 한국에 시온을 세우는 일도 온전히 한국의 회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초기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과 교회에 대한 큰 관심과, 큰 사랑과, 큰 희생과,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에게 닥쳐왔던 슬픔과 역경들이 모두 귀중한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된다는 김영 자매의 말처럼 고난과 어려움은 홍정환 형제 가족을 보다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단단함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에 서’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시온으로 모이자

Gather in Zion



2009년 8월 1일부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님이셨던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님이 교회 본부로 가시고 그분과 함께 일하던 우리들은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번즈 장로님과 함께 일했고, 함께 기도했으며, 함께 사랑을 나누어 왔습니다. 북아시아 지역 회원 한 분 한 분을 대신하여 우리는, 가족을 떠나 이 지역에서 봉사하셨던 그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셨던 그분의 깊은 사랑과 눈물을 오래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지역 회장단은 선지자들의 권고에 따라 '시온 건설(Establish the Zion)'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 모든 신권 지도자들이 지난 3월에 대전에

모여 한국인으로서의 시온 건설의 의미에 대해 영으로 강화되는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개월간 *리아호나* 지역 소식란에는 '시온으로 모이자(Gather in Zion)'는 주제로 여러 신권 직원들의 메시지가 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같은 주제아래 청년 대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준비 위원회에 지명된 신권 지도자 및 형제 자매님들의 쉴 틈 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이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신앙과 충실함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열의에 찬 준비가 분명 이 대회를 더욱 찬란하게 빛낼 것이며, 이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을 한국 땅, 서울에 함께 모이도록 하는 것이 이 한국 교회의 미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하여 이 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십이사도 중 한 분을 모시는 이러한 특별한 대회를 맞이하는 우리는, 참여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한국 회원들 모두가 주님의 뜻을 확실히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향연의 장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축복을 나눠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이 대회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한인 청년들을 조국으로 불러 모으고 주님의 사도이신

쿠엔틴 엘 쿡 장로님과 함께 그들이 한국 땅에 태어난 특별한 소명을 함께 찾을 것이며 앞으로 그들과 더불어 한국에 시온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그들의 부모님들과, 그들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시온의 진정한 의미를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매진하여 선지자를 따를 것을 함께 다짐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하여 인용되어온 바와 같이 현대의 많은 선지자들께서는 이스라엘의 집합이 자신의 각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성도들은 자신의 출생과 국적이 주어진 각 나라에서 시온을 건설하라는 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지지하며 그분들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번 청년 대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분들의 가르침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며, 그리하여 이곳 한국에서의 시온 건설을 위한 우리 개개인의 소명과 역할을 찾아 행할 것을 결심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한국 성도들에게 이

대회를 위하여 매일 기도해 주실 것과 매일 경전 공부하는 시간 외에 *리아호나*를 함께 읽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히 연차 대회 특집호와 최근 *리아호나*를 우선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권고 합니다. 우리가 이를 행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니파이후서 32장 3절)를 일러 주실 것이며, 한마음 한뜻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된 우리들이 분명 시온으로 불려질 것입니다(모세서 7장 18절). 그리하여 이 대회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마쳐질 것이며 한국의 시온을 강화하는 데 거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국에 태어났으며 이곳에서 시온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모읍시다.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왕국에 헌신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곳에 시온을 세우고 능력과 신앙을 모아 시온을 강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의 한걸음 한걸음이

'시온을 세우려 힘쓸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신의 은사와 권능' (니파이전서 13장 37절)에 의해 인도되고 축복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시온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과 인내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회장단은 여러분을 마음깊이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으며 의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

여러분을 사랑하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게리 이 스티븐슨



최윤환



코이치 아오야기

2005년 전국 청년 대회 당시의 사진





맨 위: 정명환 형제와
오정란 자매의 성전
결혼 후 사진.

왼쪽 위: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하는 하정옥 형제.
왼쪽 아래: 청년
대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 이인주
자매(오른쪽 두 번째).
오른쪽: 최현호 형제
가족.



청년 대회를 통해 얻은 간증

“주님의 졸업 선물”

정명환 형제

〈울산 지방부, 신정 지부〉

2003년도 경주 청년 대회.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한 뮤지컬 “미녀와 야수”의 성공과 즐거운 무도회 등의 여운을 뒤로 한 채 저는 몇몇 형제들과 함께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후 다른 형제에게서 바로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던, 지금은 제 아내가 되어있는 오정란 자매를 소개 받기도 하는 등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나이 차가 있었기에 이성으로 다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해가 지나서 어느덧 2004년도 청년 대회 준비를 위해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부산 스테이크 독신 회원 대표였고, 오정란 자매는 마산 스테이크 독신 회원 대표였습니다. 저희들은 청년 대회를 준비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대회 준비 위원회에서는 대회 장소인 남해로 답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오 자매와 역사적인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마침내 청년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날 데이트 프로그램에서 오 자매와 저는 커플이 되었고, 청년 대회를 기점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번의 만남을 거쳐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4월 29일 서울 성전에서 성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본 아내는 무척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장 행복한 추억”

이인주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

많은 대회들 중에서 독신 대표 부름으로 청년 대회를 직접 준비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다섯 개 스테이크와 지방부가 함께 경주에서 청년 대회를 가졌던 해였습니다. 반년 정도 준비를 해왔지만 막상 대회가 시작되었을 때 저희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몇몇 청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회 참석이 어렵게 되어 예산에 문제가 생겼고, 대대편성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또 잘 점검했던 시설에 이상이 생기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들보다도 가장 속상했던 것은 이 대회를 참석하는 청년들이 혹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청년 대회를 통해 선교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뜨거운 간증을 나누었고, 또 어떤 청년은 구도자로서 개종을 결심했으며, 또 다른 청년은 저활동 회원이었지만 다시금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간증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대회기간 동안 반려자를 만나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는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대회를 준비한 이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청년들은 청년 대회에서 각자가 배우고 느껴야 할 영적인 풍성함을 훌륭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청년 대회는 바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모임이며 저희 모두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도 무척이나 기대 됩니다. 저는 영적으로 변화되는 친구들과, 선한 영향을 나눠줄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서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추억하며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후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나이 많고, 배 나오고, 세상적인 조건이 너무도 부족한 내가 어디가 좋아서 나를 택했냐고. 그러자 아내는 2003년 청년 대회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열심히 뒷정리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빛나 보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빛을 보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지윤이라는 귀여운 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축복이 청년 대회만 열세 번 참석한 저에게 주신 주님의 졸업 선물인 아닐까 농담 삼아 말하고는 합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최현호 형제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4년 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2005년 한국 청년 대회’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준비를 위해서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필요했지만 이미 대다수의 청년 독신 성인들이 ‘문화의 밤’ 행사에 부름을 받고 있었기에 청년 대회를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준비 인원은 해결되었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회 장소로 결정된 강원도 횡성은 거리가 멀어 대회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비 위원회에서는 장소를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으로 니파이전서 3장 7절의 말씀인 “...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 하였더라”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순종을 하여 결정된 대회 장소에서 준비하기로 했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잘 풀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청년 대회의 꽃인 무도회를 할 때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야외 모임이었던지라 다들 비를 피해 실내로 들어갔고, 모임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회를 감리하셨던 고원용 장로님의 지시에 따라 저희들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을 맞이했던 것은 비가 그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2005년 한국 청년 대회에 참석했던 청년 독신 성인들은 주님이 그 대회를 주관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예비하지 않으시고는 행하라고 명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정옥 형제

〈마산 스테이크 진해 와드〉

십 수 년 전, 당시 신입 독신 성인으로서 참석했던 청년 대회는 그야말로 경전 상에서 보던 시온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사연을 소개합니다.

양산 근처에 있는 천성산에서 청년 대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없었기에 우리들은 산 위에 텐트도 아닌 대형 천막을 치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첫날에 부지런히 천막을 친 후 우리들은 급히

밥을 지어서 먹고는 세미나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 세미나장으로 함께 가지 못한 저는 중간에 발길을 돌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맘을 뻔뻔 흘리며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몰랐던 저는 그 형제에게 무얼 하느냐고 물었고 그 형제의 대답은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형제는 바로 화장실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설 담당도 아닌 형제가 화장실이 없어서 회원들이 몹시 불편을 느낄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모든 활동을 반납하고 혼자서 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을 파고 천막을 두르자 멋진 임시 화장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세미나에서 돌아온 회원들은 완성된 화장실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만들었노라고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청년 대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사랑을 다시금 회원들에게 봉사하고 주님께 돌려주는 것을 배웁니다. 저는 청년 독신 성인을 담당하는 고등평의원으로서는 청년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을 청년 독신 성인 여러분이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부탁드립니다. 대회에 참석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 동료들에게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청년 대회에서 복천년의 아름다운 날을 미리 경험하실 것입니다. ■

개인 및 가족 복지를 인도하는 원리

토마스 에스 몬슨 “개인 및 가족 복지를 인도하는 원리” 성도의 벗, 1987년 2월호.

지 금으로부터 50년 전 (역자주: 현재는 73년 전) 4월 5일 일요일이었던 당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은 매우 중요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이 그의 두 보좌인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님과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과 함께 그 모임을 감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적용되고 있으며 교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영원한 원리가 그 모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조직(교회)은 거룩한 계시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이 세상에서 그 회원을 우리만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클라크 회장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이 위대한 사업을 수행할 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Henry D. Taylor, The Church Welfare Plan, unpublished ms., Salt Lake City: Henry D. Taylor, 1984, 26~27쪽)

저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수립된 그해에 주어진 중요한 말씀과 하늘로부터 영감 받은 권고를 연구하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교회 복지 원리를 다시 강조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전진할 힘과 결단력을 주는 초기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은 같은 해 10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 복지 사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원리가 담긴 제일회장단의 성명서를 낭독하셨습니다.

그 성명서에는 이런 친숙한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가능한 하나의 체제를 설립하여 이 체제 하에서 게으름의 악습과 실업 수당에 의한 폐단을 없애고 자립, 근면, 절약, 자존심이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한 번 확립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회원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 교회 회원의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로 다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Conference

Report, 1936년 10월 3쪽)

그렇게 시작된 이래로 우리 교회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복지 원리를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절차는 수정을 거쳤으며 변화하는 필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 원리는 계시된 진리입니다. 이 계시된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 지도적인 원리를 항목별로 일, 자립, 건전한 재정 관리, 일 년치 필수품, 친척을 돌봄, 현명한 교회 자원 관리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수입을 현명하게 관리하라는



권고보다 더 빈번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나라에서 개인의 부채는 엄청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 가운데에서조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정 예비금이 거의 없습니다. 해결책은 예산을 세우고 우리의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미래를 위하여 일부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은 부채의 무거운 짐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온 세상 어디를 보아도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재정 및 경제생활의 규칙입니다. 이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 는 결코 잠자지도 않으며, 병들거나, 죽지도 않으며, 병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주일과 휴일에도 일하며, 휴가를 가는 적도 없고 방문이나 여행도 하지 않으며 여가를 즐기지도 않습니다. 이자는 해고나 퇴직 당하지도 않으며, 오랜 시간 일합니다 ... 일단 빚을 지기만 하면 이자는 밤낮으로 여러분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이자를 피하거나 빠져 나갈 수도, 떠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자는 애원과 요구와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자의 앞길을 방해하거나 그 길을 가로지르거나 혹은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때는 여러분을 멸망의 구렁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Conference Report, 1938년 4월 103쪽)

건전한 재정 관리에는 또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다른 궁핍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주님에게 금식 헌금을 바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하게 하고 싶다면 기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젊은 감독으로 봉사하던 당시 저는 어느 날 밤늦게 병원으로부터 우리 와드의 어떤 미망인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병원으로 가서 미망인의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곳에는 제가 따라야 할 절차가 적힌 노트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망인의 초라한 지하실 아파트로 들어가서 불을 켜고 작은 거실에 놓여 있는 조그만 탁자로 갔습니다. 그 탁자 위에는 두 개의 작은 병이 있었으며 그 밑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병에는 25센트짜리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남은 친척이

아무도 없었던 이 상냥하고 작은 체구의 과부인 캐슬린 맥키는 이런 쪽지를 남겼습니다. “감독님, 이것은 저의 금식 헌금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정직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지 서로에게 물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금식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는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제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정직한 금식 헌금, 후한 금식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법을 알고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활을 이런 복음 원리에 일치시키려고 할 때, 개인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준비되고, 가르치고, 들어 올리고, 쌓고, 동기를 부여하며, 영감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고 승영시키기 위한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

새로운 서울 선교부 회장 부부



2009년 7월 1일부터 서울 선교부의 새로운 선교부 회장으로 이용환 회장이 부름 받아 아내인 한인자 자매와 봉사하고 있다. 이용환 회장은 고등평의원, 지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 등의 부름을 받아 봉사했으며 한인자 자매와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지역 칠십인 부름에서 해임된 후 부부 선교사를 준비하던 두 사람은 선교부 회장이라는 새로운 부름 앞에서 많은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 물론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함께 했지만 주님의 길을 따른다면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에 곧 마음이 편안해졌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세상적인 여러 직책을 맡은 바 있는 이용환 회장은 세상적인 부름과 교회 부름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부름이란 영광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름과 교회 부름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부름은 봉사 이전에 영광이 먼저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용환 회장 부부가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이루고자 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선교사들과 함께 주님의 사업에 매진하는 것. 바로 그 기본적인 원리가 두 사람의 포부이자 비전이다. 선교 사업이야 말로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용환 회장과 한인자 자매. 두 사람이 전하는 선교 사업에 대한 간증은 다음과 같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전하고, 회개와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와 끝까지 견뎌를 통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 보람 있고 귀한 일입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1명/해외 1명



박인철 장로
서울 스테이크
서대문 와드
대전 선교부



조은비 자매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캘리포니아 샌호새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감독: 김영철(전임: 윤영문)

서울 스테이크

삼청 와드와 청운 와드가 통합되어 삼청 와드가 됨(감독: 김우경)

서울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감독: 윤상근(전임: William Daniel Hunsaker)

서울 북 스테이크

일산 와드 감독: 김철수(전임: 하태완)

서울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감독: 유장철(전임: 황광범)

안양 스테이크

산본 와드 감독: 남상억(전임: 김정일)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지부 회장: 윤종순(전임: 김용갑)

몰몬경 합본 HTML 서비스 시작

교회 공식 홈페이지인 www.lds.or.kr에서는 한국어 몰몬경 합본의 HTM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회원들은 인터넷 상에서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프린트도 가능하며 특정 부분을 복사해서 컴퓨터상에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lds.or.kr 접속→ 메인 화면에서 교회 자료 열람실 선택→ 경전 메뉴 선택→ 다음 화면이 나오면 한국어와 영어 중 한국어를 선택